스페인의 알카라스가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 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의 볼을 되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테니스 마드리드 오픈 우승 … 만 19세 대회 최연소 기록

남자 테니스 '신성' 카를로스 알카라스(9위·스페인)가 또 한번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총상금 674만4165 유로)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알카라스는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를 1시간 2분만에 2-0(6-3 6-1)으로 완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03년 5월 5일생인 알카라스는 2002년 시작된 이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만 19세) 기록을 세웠다.

마드리드오픈은 4대 메이저 대회 다음 등급인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대회다.

지난달 마스터스 1000 대회인 마이애미오픈에서 우승한 알카라스는 이로써 역대 2번째로 어린 나이에 마스터스 1000 대회에서 2회 우승을 이룬 선수가 됐다.

이 부문 최연소 기록은 알카라스의 '우상'인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이 가지고 있는데, 나달은 만 18세이던 2005년에 몬테카를로오픈과 로마오픈에서 우승했다.

알카라스는 올 시즌 투어 레벨 이상의 대회에서 4번째 단식 우승을 이루며 이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올 시즌 28승을 올려 다승 부문에서도 선두로 나섰다. 이번 대회에서 27승까지 올리고 준결승에서 츠베레프에 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그리스)를 추월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알카라스는 랭킹 10위권 안의 선수를 상대로 7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대회 8강에서는 나달, 준결승에서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알카라스는 이날 츠베레프에게 서브 에이스에서는 1-3으로 뒤졌지만 더블폴트 0-5, 전체 획득 포인트 56-29 등 다른 대부분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

알카라스의 랭킹은 6위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 펜싱 남녀 사브르 대표팀 월드컵 단체전서 나란히 우승

한국 펜싱 남녀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나란히 우승 소식을 전했다.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이들은 1월 조지아 트빌리시 월드컵 이후 4개월 만에 월드컵 단체전 우승을 차지, 남자 사브르 팀 세계랭킹 1위를 질주했다.

이번 대회 단체전 16강부터 중국, 프랑스, 독일을 연파한 한국은 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아론 실라지를 앞세운 헝가리를 45-32로 완파하고 시상대 맨 위에 섰다.

오상욱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올랐다. 그는 남자 사브르 개인 세계랭킹 1위를 달렸다.

김정환은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랭킹 2위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에는 김지연, 윤지수(이상 서울특별시청), 최수연(안산시청), 김정미(호남대)가 단체전에 함께 출전해 우승했다.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3월 터키 이스탄불 월드컵에 이어 단체전 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프랑스에 이어 팀 세계랭킹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맥스 호마

PGA 웰스파고 챔피언십 맥스 호마 3년 만에 우승

맥스 호마(미국)가 자신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을 신고했던 웰스파고 챔피언십(총상금 900만 달러)에서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호마는 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포토맥의 TPC 포토맥(파70·716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8언더파 272타가 된 호마는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62만 달러(약 20억6000만원)다.

호마는 이번 2021-2022시즌 개막전이던 지난해 9월 포티넷 챔피언십 이후 약 8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 PGA 투어 통산 4승을 수확했다.

2013년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개인전과 국가대항 단체전인 워커컵에서 우승한 기대주였으나 PGA 투어 데뷔 이후 두각을 나타내진 못하던 워커는 2019년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이번 시즌엔 2승을 거뒀다.

3라운드까지 선두 키건 브래들리(미국)에게 2타 뒤진 2위였던 호마는 이날 초반 브래들리의 난조 속에 선두 자리를 꿰차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나섰다.

5~8번 홀에서 버디만 3개를 잡아낸 브래들리가 선두를 되찾았지만, 호마는 9~10번 홀 연속 버디로 응수하며 전세를 다시 뒤집었다. 11번 홀(파4)에서 잇단 샷 난조 속에 더블보기를 써내 3타 차로 멀어진 브래들리는 막판 한 타 차로 압박하기도 했으나 호마는 리드를 내주지 않았다.

PGA 투어 5승을 기대한 브래들리는 이날 2타를 잃고 호마에 2타 차 공동 2위(6언더파 274타)에 만족해야 했다.

매슈 피츠패트릭(잉글랜드)과 캐머런 영(미국)이 함께 2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엔 이경훈(31)이 공동 25위(1오버파 281타)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경훈은 이날 2타를 잃었다. 김시우(27)는 5타를 잃고 공동 37위(5오버파 284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KIA, 주중 안방서 KT·주말 잠실서 LG와 순위 경쟁

타이거즈 전망대

난적 상대 '뒷심 싸움'이 관건

화력을 깨운 '호랑이 군단'이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다.

6연패 뒤 5연승을 달린 KIA 타이거즈가 새로운 한 주 설욕전에 나선다.

KIA는 주중 안방에서 KT 위즈를 만난 뒤 주말에는 잠실로 가서 LG 트윈스를 상대한다.

앞선 만남에서 쓴 패배를 안겨줬던 상대들이다.

KIA는 앞선 수원 원정에서 '뒷심' 싸움에서 밀리며 루징 시리즈를 남기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삼성전 충격의 스윕패와 함께 키움전까지 내리 6연패를 기록했다.

LG와는 개막전에서 만나 영봉패로 시즌을 열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2-3로 지면서 개막시리즈에서 모두 패를 기록했다. 불안한 수비로 개막 2연전을 연 KIA는 시즌 내내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IA는 연패의 시작점이 된 KT를 연승 분위기에서 만난다.

매서워진 창으로 설욕에 나선다.

지난해 '팀홈런 최하위'에 그쳤던 KIA는 지난주 '한 방'의 힘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박동원이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키움 요키시를 상대로 솔로포를 기록했고 연타석 홈런, 나성범과의 백투백 홈런도 장식하는 등 지난주 3홈런을 날렸다.

나성범과 황대인도 결정적인 순간 두 차례 홈런포를 날리면서 화력 싸움의 주역이 됐다.

여기에 베테랑의 투혼이 선수단을 깨웠다.

'최고참' 최형우가 공·수에서 몸을 날리는 활약을 펼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5일 키움전에서 좌익수로 선발 출장한 최형우는 1회초 1사 3루에서 이정후의 안타성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냈다. 최형우의 몸을 날린 수비에 적시타가 희생플라이로 둔갑했고, 수비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던 선발 이의리가 1실점으로 1회를 넘긴 뒤 8이닝을 책임지고 시즌 첫 승을 올릴 수 있었다. 최형우는 6일에는 타석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2회초 1루에서 최형우가 이날 첫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가 우측으로 쏠리는 극단적인 시프트를 가동했고, 최형우는 빈 3루를 향해 번트를 시도했다.

허를 찌르는 플레이로 상대의 시프트를 깬 최고참은 데뷔 첫 번트 안타를 만들었고, KIA는 이 이닝에서 4점을 만들면서 승기를 잡았다.

최형우는 8일 경기에서는 KBO리그 통산 2번째 1400타점도 올리는 등 투혼의 플레이로 KIA 반전의 빛나는 조연이 됐다.

어려운 상대를 만나야 하는 한 주 '뒷심 싸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승 기간 장현식과 정해영은 나란히 3경기에 출전했다. 장현식이 2홀드, 정해영이 1승 2세이브를 기록하면서 3경기 모두 KIA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과정이 좋지 못했다.

두 사람이 모든 경기에서 주자를 내보내면서 진땀 승부를 벌였다. 필승조의 성적에 따라서 '난적'을 만나는 KIA의 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중간순위 (9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SSG	32	23	1	8	0.0
2	LG	32	18	0	14	5.5
3	두산	31	17	0	14	6.0
4	롯데	31	16	1	14	6.5
5	키움	32	17	0	15	6.5
6	삼성	32	16	0	16	7.5
7	KT	31	15	0	16	8.0
7	KIA	31	15	0	16	8.0
9	한화	32	11	0	21	12.5
10	NC	32	9	0	23	14.5

KIA, SSG와 트레이드 … 포수 김민식 가고 김정빈·임석진 영입

KIA 타이거즈가 시즌 세 번째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포수 김민식(33)을 SSG 랜더스에 내주고 좌완 김정빈(28), 내야수 임석진(25)을 영입했다. 트레이드와 함께 '우승 포수'로 자리했던 김민식이 5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가게 됐고, KIA는 좌완 불펜과 내야수를 더했다.

화순고 출신의 김정빈은 지난 2013년 SK에 입단했고, 2018~2019년 상무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김정빈은 시속 140km대 중반의 빠른 공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 통산 3시즌 동안 65경기에 나와 1승 2패 1세이브 10홀드, 평균자책점 6.52를 기록했다. 올 시즌 1군 출장 기록은 없지만 퓨처스리그에서 7경기에 중간계투로 나와 평균자책점 0.93으로 2홀드를 올렸다.

우투우타인 임석진은 지난 2016년 SK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다. 1군에서는 11경기에 나와 0.182의 타율을 기록했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임석진은 1루와 3루와 수비가 가능한 거포 유망주로 평가받는다.

김민식은 지난 2017년 SK와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었고, 이해 한국시리즈에서 'V 11'을 확정하는 마지막 공을 받는 등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프로 8시즌 동안 61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0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22경기에서 타율 0.241을 찍었다.

지난 4월 24일 키움과의 트레이드로 포수 박동원을 영입했던 KIA는 고민 지점인 좌완 불펜에 방점을 두고 다시 포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4월 23일 한화와의 2대 1 트레이드에 이어 세 번째 트레이드다.

김정빈(왼쪽)과 임석진

KIA 관계자는 "김정빈과 임석진은 20대의 젊은 선수들로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김정빈은 좌완 불펜이 다소 부족한 팀 실정상 중간계투진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